성도의벗 7
1976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이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6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제12권 제7호
통권 132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 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상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성도의벗 1976년 7월호

목 차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1 **대관장단 메시지 : 결혼 결정**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5 **남태평양에 있는 교회** 알 러니어 브리티쉬
몰몬 일지 알 러니어, 조안 엠 브리티쉬
10 **나는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게 기름 축복을 하는 꿈을 꾸었읍니다**
11 **도대체 왜 그들은 불렀소?**
11 **우리는 신전에 가기 위해 월 70센트로 생활하였다**
21 **지혜의 말씀이 주는 축복**
21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23 **금전에 대한 가르침** 마빈 제이 애쉬튼
25 **남태평양 지역 대회**
30 **경전과 삶** 장 재환

어린이 페이지

13 **집에서 만드는 장난감**
14 **힐라맨과 이천명**
16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라** 루시 파
19 **꼬마 펠리칸** 헬렌 힝클리 조운즈
20 **개척자 수수께끼**

표지 해설: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타에는 통가에 있는 바바우 지방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1936년에 만든 아름다운 타파바크가 걸려 있다. 전통적인 통가 스타일과 전통적인 몰몬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범세계적인 교회의 개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1976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읍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깊은 수심에 싸여 나를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교통 사고로 죽고 어린 손주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녀는 큰 실망을 안고 와서 비행기 충돌 사고로 죽은 그 젊은 부부는 아직 신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훌륭한 가정의 출신이었지만 신전 결혼을 무시했거나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이 의식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에서 "한 평생"이라고 하는 주례사는 그들을 다시 독신의 상태가 되게 했으며 그들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죽은지 1년 후면 신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살 때 그처럼 가볍게 여긴 이 의식을 그들이 죽은 후에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은 방법으로 조롱을 당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을 산자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의식으로 규정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어떤 신비스러운 이면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 즉 숨을 거둘 때 부실했던 사람이 천사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의심이 있는 곳에 신앙이 생겨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 처녀의 비유를 주의깊게 연구해 보았습니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한 처녀들은 받아 들여졌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쫓겨났습니다. 태만은 분명히 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할 때에 현세 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른 영원한 결혼을 아내와 서약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기름을 부어 이 권능을 지니도록 임명한 자를 통하여 약속의 성령으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저들은 나로 말미암거나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서약은 효능이나 효력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저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서약은 다음 세상에서 받아 들일 수 없음이라. 여러 천사와 신들이 그곳에 임명되어 있어 저들이 그들 옆을 지나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2 : 18)

주님께서는 천사가 받는 보상도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교성 132 : 16)이 받을 축복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결혼을 합당한 방법으로 다루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정하신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려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교성 132 : 19)

이것은 어떤 견해의 문제도 아니며 여러분이나 내가 생각하거나 토론해야 할 문제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문간에 있는 심판자들은 기록과 영과 참된 기록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계 20 : 12참조)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적을 낱낱이 알려 줄 것입니다.

내가 규정과 규율과 영광과 유익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주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그의 메시지를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해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느니라."(교성 132 : 21)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읍니까? 토론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젊은 자매들이 그들의 애인에게, "만일 형제님이 신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생애도 형제님께 매이게 하지 않겠읍니다."라고 말할 때, 젊은 귀환 선교사가 그들의 애인에게 "자매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거룩한 신전에서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읍니다."라고 할 때, 시온에는 새로운 영이 도래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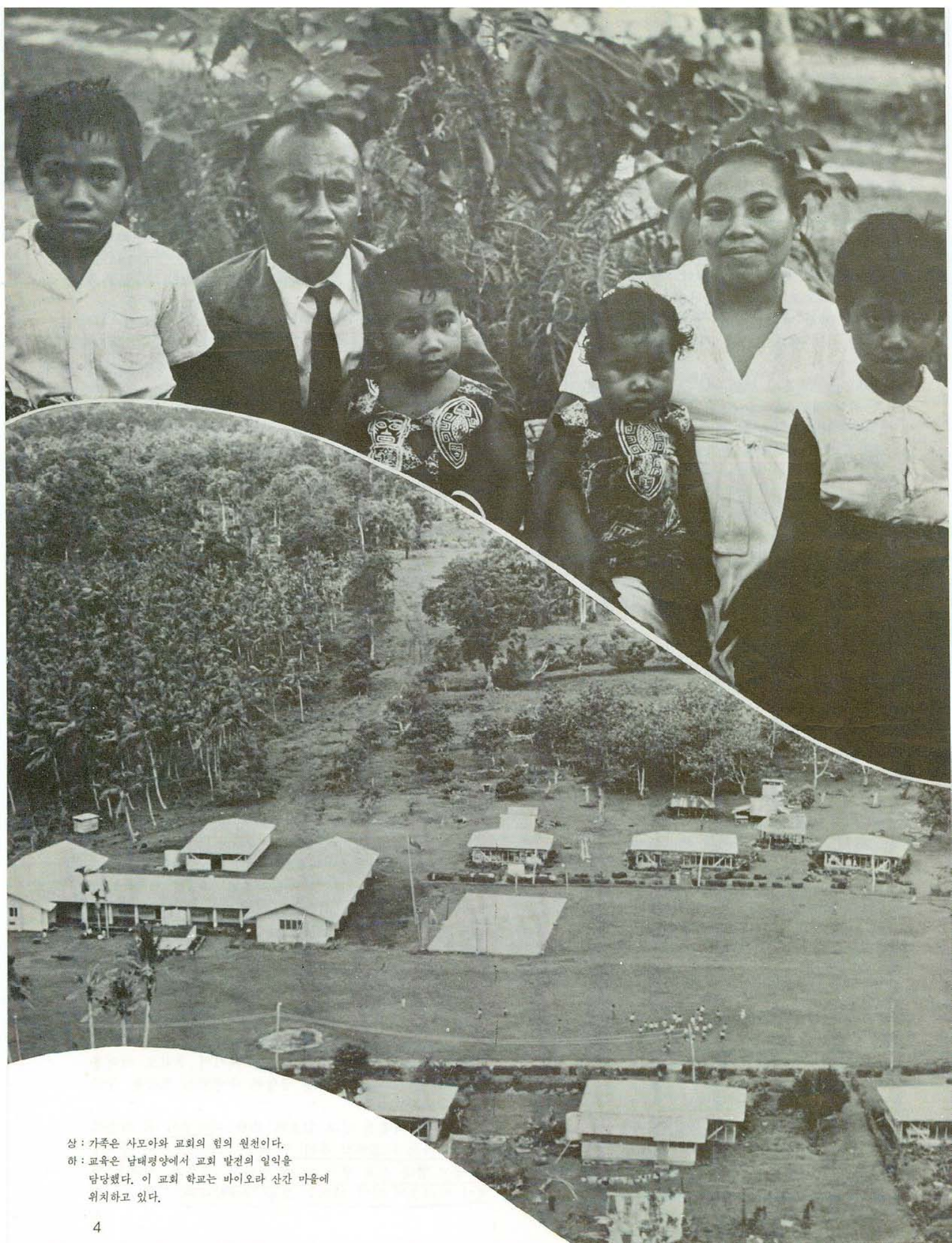
좀 더 명랑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몇 주 전에 나는 어느 스테이크를 분리했읍니다. 각 스테이크의 신임 스테이크 부장을 찾기 위해 29명의 형제와 접견을 했는데 29명이 모두 영원한 인봉 의식을 가진 형제들이었읍니다. 그들에게는 12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평균 한 가정에 4.3명(또는 6.3명)의 자녀를 둔 셈이었읍니다. 사망이나 이혼으로 부부가 헤어진 가정은 없었읍니다. 29명 모두가 훌륭한 직장을 갖고 좋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자녀 중 43명은 13세 이상의 청소년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전혀 없었읍니다. 마약이나 술 혹은 담배를 사용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모든 사람이 승영을 향해 충실히 나아가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갖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전혀 녹지 않는 얼어붙은 황야에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왜 어떤 젊은이들은 신전 밖에서의 결혼 만을 생각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놓치려 합니까? 왜 신전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과 가정의 파탄과 부도덕과 불충실을 생각하려 합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풍족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지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도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하고 의로운 생활에 수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곧고 좁은 길로 걸어 갈 때 충만한 축복과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



상 : 가족은 사모아와 교회의 힘의 원천이다.
하 : 교육은 남태평양에서 교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이 교회 학교는 바이오라 산간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남태평양에 있는 교회

알 러니어 브리티쉬

1820년 봄에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 바다의 섬들은 거의 동시에 복음 전파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797년에 신교의 선교사들이 프랑스영 폴리네시아(소시에테 군도, 투아모투 군도, 투부아이 군도 및 마르퀘사스 군도)에 기독교를 들여 왔다. 1820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1820년 후반에는 존립이 가능한 신교 선교 사업이 통가에 뿌리를 내렸으며 1830년에는 사모아에서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를 맞아 들였다. 이렇게 하여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은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회복을 선하고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벌써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접하게 되었다.

19세기 무렵 태평양 연안에서는 포경업이 큰 산업이었으며 그곳에는 수백척의 포경선과 수천명의 어부들로 붐비고 있었다. 포경 어부 가운데 애디슨 프랫과 벤자민 에프 그루아드라는 두 사람이 후에 교회에 입교 했다. 1822년에 프랫은 선장과의 불화로 배가 샌드위치 군도(하와이)에 정박했을 때 배를 떠났다. 오아후에서 지낸 6개월 동안의 추억은 오랫동안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1843년 겨울에 프랫 형제는 섬에서의 경험담을 요셉 스미스에게 들려 주었다. 곧 애디슨 프랫과 다른 세 사람, 즉 벤자민 에프 그루아드와 노울든 에프 행크스와 노아 로저스는 태평양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들의 항로는 길고 험했다. 부름받은 당시에 병중에 있던 행크스 장로는 항해 도중에 죽었다.

1844년 4월 30일에 타히티 섬에서 남쪽으로 약 640킬로미터 떨어진 투부아이 섬이 보였다. 요셉 스미스와 십이사도는 이 샌드위치 군도에서 일할 장로들을 임명했으나 뱃길이 너무멀고 또한 투부아이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 복음 성직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영 폴리네시아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선교부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프랫 장로는 투부아이 섬에 계속 머물렀다. 그루아드 장로와 로저스 장로는 타히티로 건너 갔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곳에서 헤어졌다. 로저스 장로는 그 지역의 섬들을 차례로 돌아 다녔으나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1845년 여름에 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루아드 장로는 타히티 섬을 떠나 투아모투 군도에 있는 아나아 섬으로 건너가 즉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이섬에서 1845년 4월 4일에 선교 활동을 시작하여 3주 후에 최초의 개종자를 침례하였다. 그 해 9월까지 그는 620명의 회원에 5개의 지부를 세웠다.

한편 프랫은 투부아이 섬에서 1844년 7월 29일에 최초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의 지부를 조직했다. 이 지부는 태평양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지부이기도 했다. 1845년 2월에는 투부아이 섬에 60명의 회원이 생겼다.

그러나 그루아드 장로는 혼자서 투아모투 성도들의 행정을 모두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프랫 장로에게 그에게로 와서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1846년 2월부터 그루아드 장로가 조용한 다른 섬에서도 선교 사업을 펴기로 결정한 그 해 여름 중반까지 아나아에서 일을 했다. 그루아드 장로는 폴리네시아 성도들이 갖는 최초의 대회를 위해 9월에 아나아로 돌아왔다. 열 개의 지부에서 모일 대표들의 수는 무려 866명에 달했다.

1847년 3월에 프랫 형제는 성도들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거의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제임스 에스 브라운과 프랑스영 폴리네시아로 돌아왔다. 그들의 뒤를 이어 프랫의 가족과 다른 가족들이 왔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영 폴리네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했으며 선교부는 1852년에 문을 닫았다.

그들이 그곳에서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주민과 더불어 생활한 생활 태도였을 것이다. 그들은 세금이나 또는 그럴듯한 헌금의 명목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루이자 비 프랫 자매와 그녀의 동생 캐럴라인 크로스비 자매는 이군도에 와서 그곳 여인들에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방법과 훌륭한 주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쳤다. 선교사들은 조그마한 학교를 세웠으며 찬송가 가사를 타히티 말로 옮겼다.

태평양 지역에 회복된 복음을 세우려는 교회의 두번째 시도는 샌드위치 군도에서 시작되었다. 1850년 12월에 10명의 선교사가 캘리포니아주 채금장을 떠나 이곳에 도착했다. 하와이에서의 선교 사업은 처음 1년 동안 잘 진전되어 갔다. 그 후로 메시지의 새로움은 호소력을 잃어 갔으며 점차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회원이 생기게 되었다. 불행히도 소위 유타 전쟁으로 알려진 사태가 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여 선교사들은 1858년에 소환되었다.

3년 후에 다시 선교사가 하와이에 도착했으며 1864년부터 하와이에서의 교회는 오랜동안의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하와이에서 가장 특기할 한가지 발전은 라이에에 신전을 건축한 일이다. 1915년 신전 건축 발표가 있은 후부터 1919년 11월 27일에 신전이 헌납될 때까지 태평양 지역의 성도들은 신전 건립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오랫동안 하와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 지역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선교 활동이 이처럼 활발하지는 못했다. 1840년대에 걸쳐 호주는 수확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선교사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몇 개의 지부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선교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반대는 널리 퍼져있던 거짓 소문과 1851년 호주를 휩쓸던 황금열 때문이었다. 황금에 대한 열은 거의 모든 사람을 그 분위기에 몰아 넣어 금보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호주에서의 계속적인 선교 활동을 방해했다. 그것은 선교사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었다. "나는 복음의 첫째 원리 곧 신앙, 회개, 침례, 안수례, 권능에의 순종 및 시온에의 집합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시온에의 집합은 호주를 떠난 새 회원을 강화시켜 주었지만 반면 호주에 있는 교회는 크게 악화되었다. 선교 활동을 시작한 후 8년 동안에 450명의 성도들이 시온으로 이주해 갔다.

185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호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1858년에 갑자기 선교 사업이 중단되었다. 유타 전쟁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소환된 것이다. 유타 전쟁 이후에 선교 사업은 다시 천천히 회복되었다. 1856년에서 1867년 사이에 호주에는 한사람의 선교사도 파견되지 않았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875년이 되어서야 선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개시되었다. 그 해에 14명의 선교사가 파견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뉴질랜드에서 일했다. 호주에는 1885년까지 4개의 지부와 2개의 주일학교, 21명의 선교사 그리고 178명의 회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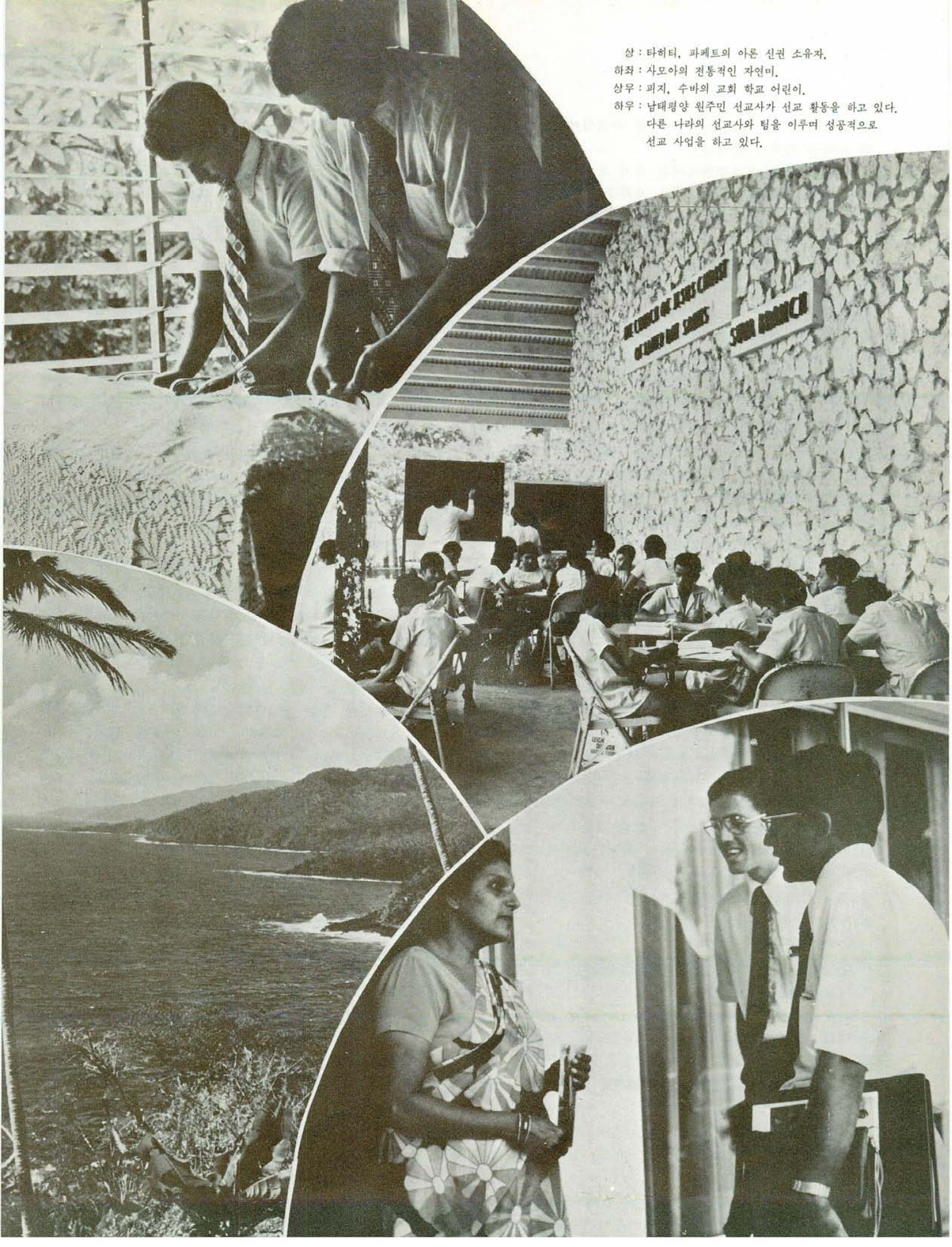
뉴질랜드에서의 말일성도의 선교사업은 1854년에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선교부가 분리되던 때인 1898년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는 하나의 선교부로 호주 선교부라 불렸다. 1870년까지 뉴질랜드에서의 발전은 그 진보가 늦었다. 그러나 1870년대가 되자 일라이자 에프 피어스 호주 선교부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 본부를 호주에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로 옮겼다. 그 후 10년 동안 두 나라에서는 평균 9명의 선교사들이 일을 했으나 대부분이 뉴질랜드에서 복음 선교 활동을 했다.

1880년대는 뉴질랜드 선교부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어떤 마오리 추장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올 것을 예언했으며 그들의 예언적인 시현은 말일성도 장로들이 옴으로 해서 실현되었다. 마오리 주민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떼를 지어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1887년에 그곳의 회원 수는 2,000명이 넘었으며 다음 한 해에는 750명의 회원이 증가했다. 그 후로 입교하는 마오리 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증가하였다. 1880년대의 초기 개종 기간 이후에 선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부와 회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냈다. 1950년 이후까지도 이곳의 교회는 마오리 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마오리 섬에서 선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던 무렵과 거의 같은 때에 사모아에도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1862년에는 하와이인 선교사 2명을 사모아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1888년 6월에는 조셉 에이치 던과 그의 아내가 투투일라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은 현재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부르는 곳이다. 곧 다른 선교사들이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1862년에 건너간 두 선교사 중에 한 명인 마노아는 그때까지 그 섬에 남아 있었으며 그는 새로 온 복음의 전달자들을 도왔다.

사모아에서는 통가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배출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영 폴리네시아에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1891년에 사모아에서 브리감 스무트와 앨바 버틀러가 통가의 수도 통가파푸 섬으로 파견되었다. 그곳에서 첫 개종자에게 침례를 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그들과 합류한 다른 선교사들의 커다란 노력으로 국민 학교도 세우고 새 종교를 전파 하기 위해 널리 여행도 했지만 통가 주민을 개종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이 너무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1897년에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나 10년 후에 선교사들은 다시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군도의 북부에 있는 바바우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부터 선교 사업을 시작하여 착실한 진척이 있자 1916년에는 사모아와 통가를 분리해서 선교 사업을 벌였다.

사모아에서 선교 활동이 크게 성공을 거두자 윌리암 오리 선교부장은 대관장단으로부터 프랑스영 폴리네시아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해 달라는 허락을 요청했다. 조셉 더블류 댐론 장로와 윌리암 에이 시그밀러 장로는 아피아에서 선편으로 타히티의 파페티로 갔다. 이것은 초기 선교사들이 개종자들에 의해 강제로 그곳을 떠나야 했던 때로부터 40년 후의 일이었다. 댐론 장로와 시그밀러 장로가 파페티에 상륙했을 때 교회는 아직도 존립해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가 가로 놓여 있었다. 1885년에 도착한 복원교회 선교사들이 많은 타히티 성도들을 그들 교회로 끌어들인 것이다. 댐론 장로와 시그밀러 장로는 이 회원들을



상 : 타히티, 파페트의 아론 신권 소유자.
하좌 : 사모아의 전통적인 자연미.
상우 : 피지, 수바의 교회 학교 어린이.
하우 : 남태평양 원주민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와 팀을 이루며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다시 교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대관장단에서는 즉시 초기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65세된 제임스 에스 브라운 형제를 타히티로 보내어 몰몬 선교사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을 돕게 했다. 그는 1892년 6월 1일에 그곳에 도착하였다. 브라운 형제가 도착하고서도 여러 달이 지나서야 프랑스영 폴리네시아 군도의 여러 섬에 있는 말일성도들은 다시 참다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비 에프 그루아드 장로가 47년 전에 그처럼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투아모투 군도에서 성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목자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그들이 참된 것을 깨달았을 때 장님으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늙은 마헤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또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참된 길을 알려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말에 따르겠읍니다.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았읍니다." 1893년 1월에 425명의 타히티인이 말일성도로 개종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40년 동안을 교회로부터 아무런 지시와 도움도 없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초기 개종자들의 강한 신앙을 알수 있었다. 태평양 연안에서의 초기 선교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46년 이후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선교 사업을 더욱 강조 하였으며 수많은 젊은 남녀는 이에 응하여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피지, 쿡크 군도, 뉴캘리포니아, 뉴히브라이즈, 솔로몬 군도, 길버트 군도 및 그 밖의 섬에서 선교 사업이 확장되어 갔다. 1950년대 중반에는 피지에서 적극적인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선교 사업은 피지인과 인디안이 반반으로 섞여 구성된 이 나라에서 훌륭한 발전을 가져왔다. (피지 선교부는 피지 주민이 폴리네시아인이 아니라 멜라네시아인, 인디안 및 마이크로네시아인이기 때문에 다른 오세아니아 선교부와는 다르다).

피지의 수도 수바는 선교 활동의 중심지이다. 이곳에는 1950년대 말기에 여러 개의 교회가 건립되었다.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국민학교를 하나 운영하여 왔으며 수바를 굽어 보는 아름다운 어느 동산 언덕에는 새로 말일성도 피지 공과 대학이 건축 중에 있다. 이것은 1976년 2월에 헌납됐다. 피지의 성도들은 이 학교를 멜라네시아에 선교 사업을 펼 청년을 기르는 요람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지는 멜라네시아의 선교 사업 기지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인도로 퍼 나갈 선교 사업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 선교부에서는 현재 10개의 언어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회 자료는 여섯 가지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이 언어 가운데는 인도에서 중요한 언어인 힌디어도 있다. 장차 인도에 선교사 부름을 받아 갈 장로들에게, 경전과 교재가 그들이 가르치게 될 주민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피지의 인디안 성도들은 언젠가는 복음을 인도에 전할 선교사가 될 것이다.

태평양 연안의 스테이크와 선교부는 그곳의 청소년들에게 자기 국민을 개종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 왔으며 사실 대부분의 교회 회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모아와 통가와 피지에서의 선교 사업은 거의 그들이 전담하고 있다. 사모아와 통가의 선교부장은 그곳 출신으로 교회에 개종한 사람들이며 모두 스테이크 부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프랑스영 폴리네시아 선교부장도 프랑스 출신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타히티에 거주한 사람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장도 그 나라 출신으로 마오리 혼혈인이다. 태평양과 호주의 다른 선교부장과 지역 대표도 모두 그 지역 출신 성도들이다.

이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배출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교회의 교육 제도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에서 말일성도들이 교육을 위해 쏟은 노력은 루이자 비 프랫 자매가 그녀의 딸과 그곳 주민의 자녀를 가르친 것을 그 효시로 한다. 1886년에 선교사들은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학교는 열 개로 불어났다. 통가에서 최초로 교회 학교가 설립된 것은 1895년이다. 이 학교도 뉴질랜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였다. 교과 내용은 읽기, 쓰기, 산수에 국한되었다. 사모아에서도 선교부가 설립된 후 곧이와 비슷한 학교가 세워졌다. 1922년에는 20개 학교에 665명의 학생을 기록했으며 11명의 팔랑기(백인) 교사와 27명의 사모아인 교사가 있었다.

사모아 성도들은 금세기 초에 특별한 두 개의 촌락, 즉 우폴루 섬에 있는 사우니아투와 투투일라 섬에 있는 마푸사가를 개발했다. 사우니아투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는 그곳 학교에 있는 취주 악단이다. 이 악단은 1921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와 그의 동반자 휴 제이 캐년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즐겁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모아의 미국 영사도 중요 행사 때면 이 악단에게 연주를 부탁했다. 사모아와 뉴질랜드와 타히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악단이 구성되었다.

국민학교는 지금도 피지와 사모아와 통가와 프랑스영 폴리네시아에서의 교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교회에서는 이 지역에 현대식 고등학교를 몇개 세웠다. 최초의 두 교회 고등학교는 교회 학교 제도 밖에서 세워져 운영되었다. 헤이스팅즈와 뉴질랜드 가까이에 있는 마오리 농과 대학은 1913년에 세워졌으며 1931년까지 뉴질랜

드에 많은 공헌을 했다. 1931년에 있던 심한 지진으로 인해 이 학교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다. 교과 과정은 미국 고등학교와 대동소이하지만 농업, 수공예 및 기타 실용적인 기술에 역점을 두었다. 학생 수는 매년 90명을 넘지 않았으나 이 학교 출신들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마오리 농과 대학 출신 가운데는 사모아인과 통가인과 타히티인이 많았기 때문에 남태평양 연안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들의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다.

마오리 농과 대학 출신들은 1958년에 세워진 뉴질랜드 교회 대학 창설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924년 8월에 엠버논 쿰즈 통가 선교부장은 기숙사가 따른 학교와 농장을 이루기 위해 9½에이커의 땅을 조차했다. 이 땅은 마케케라고 불리웠으며 그 뜻은 "일어나라 깨어나라"이다. 이곳에 세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손수 곡식을 심고 거두어 거의 자급자족을 하면서 동시에 정규 학과 공부도 했다. 마케케 학교는 마오리 농과 대학 출신 새뮤엘과 브이파카토우를 교사로 임명하여 1926년 2월에 공식적으로 학교 문을 열었다. 이 학교는 20여년 동안 운영되었다.

1952년 2월에는 리아호나라는 새로운 통가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또 폭 넓은 초등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을 보았으며 1975년 말에는 통가 북부의 바바우 섬에 새로 고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사모아에서는 세 개의 교회 학교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1974년에 미국 정부가 매입한 마푸사가이며 사바이이섬과 우폴루의 아피아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비올라와 페세가이다.

태평양 연안에서의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72년 말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교회, 국민학교와 중, 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수는 5,100여명이었다.

리아호나 고등학교 건립 계획으로 교회는 새로운, 그러나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건축 선교사" 프로그램이었다. 통가 선교부장은 숙련공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젊은 통가인을 특별한 노동 선교사로 불러 일하게 했다.

리아호나 고등학교는 수많은 지부가 새롭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도록 해준 이 프로그램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다.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계속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가족들은 그들의 가장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기술 덕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건축 선교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는 신전까지 건립되었다. 어느 한 곳에 신전이 건립되면 이것은 교회가 개인 개종자나 가족의 단계를 넘고 지부 및 지방부의 단계까지도 넘어선 상태로 발전하여 시온의 스테이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지역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케이 대장관이 1955년에 뉴질랜드에 신전 건립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그곳에는 스테이크가 없었다.

애리얼 에스 밸립 선교부장과 지역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스테이크를 조직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평의회를 조직하고 훈련 모임을 가졌으며 가능한 경우 지부와 지방부 역원을 맡아 일하던 모든 선교사를 그 직에서 해임했다. 뉴질랜드 신전은 1958년 4월 20일에 헌납되었으며 1개월 후에 오클랜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북미와 하와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직된 스테이크였다.

태평양 연안의 다른 곳에서도 교회는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발전해 나갔다. 1960년 3월에는 호주에서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62년에는 사모아에서, 1968년 9월에는 통가에서 최초로 스테이크가 각각 조직되었고 1972년 3월에는 타히티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현재 남태평양 연안에는 28개의 스테이크가 있다. 서구 및 아메리칸 사모아는 이 세상에서 전역이 모두 스테이크에 포함된 최초의 지역이다.

스테이크로 발전하게 된 중요 원인의 하나는 1950년대에 모든 선교사를 지부, 지방부 역원의 자리에서 해임하여 오직 선교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선교부장의 결정이었다. 그 결과 지역 회원들이 역원으로 일선에 나와 일하게 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자유로이 개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은 바다의 섬들의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1921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방문과 1938년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방문 및 십이사도의 방문은 이곳 선교 역사에서 아직도 특별하고 성스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다. 매튜 카울리 장로는 폴리네시아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또한 그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1950년 이후 총관리 역원의 방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사랑과 환영으로 영접되었지만 그 회수가 너무 많아 여기에 일일이 기술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거의 끊이지 않고 그의 택함받은 종의 인도를 받고 교회 혹은 학교와 같은 많은 시설을 갖게 하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간직하도록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왕국에서 그들의 처소를 마련해 가고 있다. *

알 러니어 브리티쉬, 브리감 영 대학교 역사 및 아세아 연구 부교수, 현재 오렘 유타 새론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몰몬 일지

다음에 소개하는 네 가지의 체험 실화는 알 러니어와 조안 엠 브리티쉬가 마련한 것이다.

" 나는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게 기름 축복을 하는 꿈을 꾸었읍니다."

1889년 11월 어느 날 에드와드 제이 우드 장로와 그의 선교부장이었던 조셉 에이치 던 장로는 사모아의 어느 외진 곳에 있는 반얀나무 아래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느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꿈에 장로들을 보고는 날이 새자 선교사들에게 와서 그녀가 사는 섬으로 와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아직도 조심을 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불안했으며 몰몬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 마을에 가기를 두려워 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드 장로에게는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야말로 그들이 필요로 했던 응답이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해변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는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여 집으로 인도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됐읍니다. 아이가 여기 있읍니다"하고 그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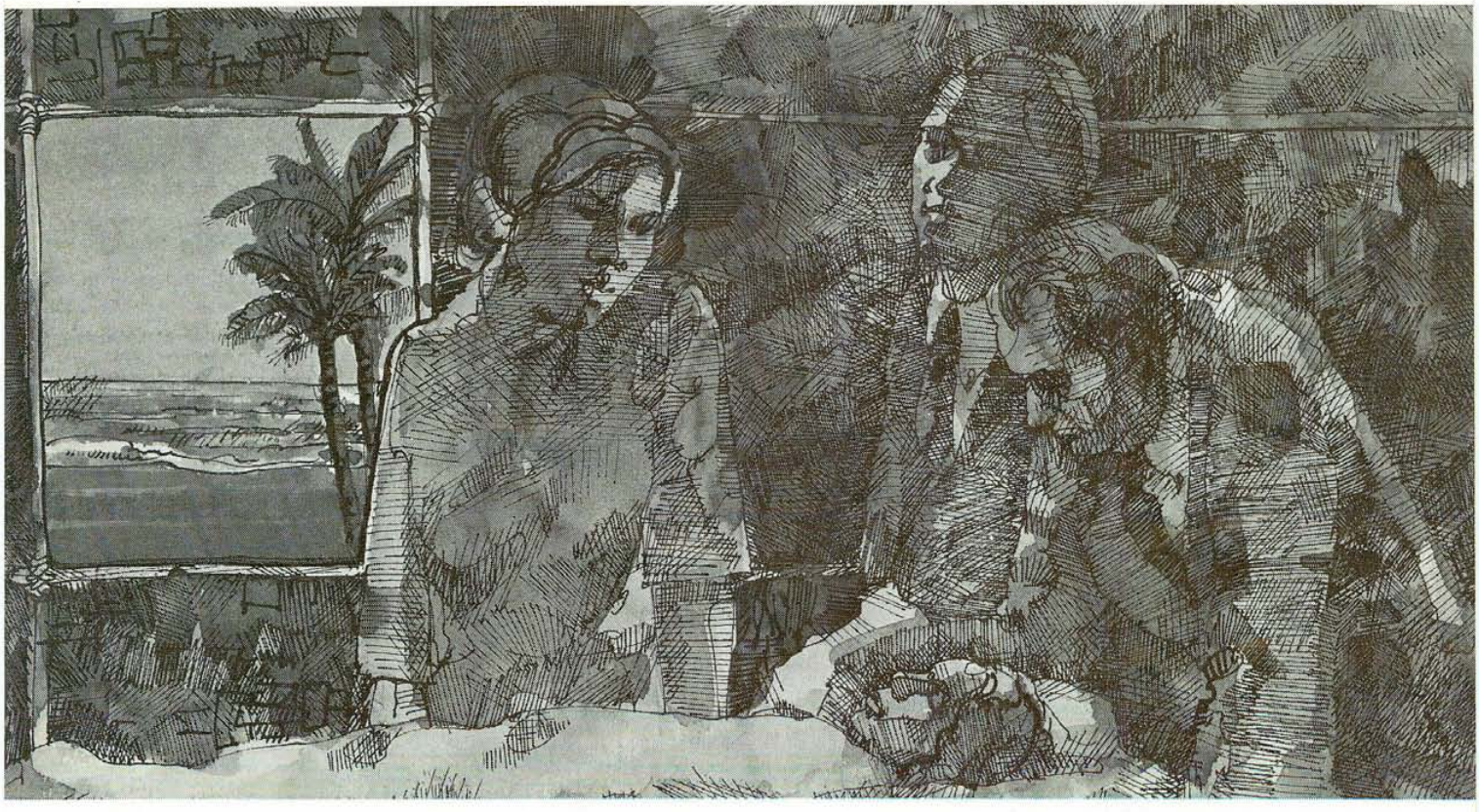
그녀는 통나무 집 마루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의 몸에 덮혀 있는 흰 천을 제쳤다. 장로들은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으나 그녀는 끝까지 딸이 아직 살아 있다고 우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제 밤 꿈에서 내가 본 것처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곧 나을 겁니다. 제가 꿈에서 본 일을 할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읍니까? 꿈에 장로님들께서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머리에 손을 얹었읍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러한 권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하고는 다시 천을 덮어 씌운 뒤 그곳을 떠났다.

우드 장로는 그 일이 있은지 2년 후 그가 다른 섬으로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그 아이나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어느 날 한 여인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아홉살 가량 된 소녀를 그녀 곁으로 부르더니 그곳에 있던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복음의 위대한 권능의 증거이며 우드씨와 그 분 동료가 지닌 권능과 권세의 증거입니다. 이 분들은 2년 전에 이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해 주었으나 그 이후로 이

"장로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러한 권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하고는 다시 천을 덮어 씌운 뒤 그곳을 떠났다."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은 급격히 번창해 나갔으며 얼마 후에는 그곳에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지부가 조직되었다. *

"도대체 왜 그들은 불렀소?"

마크 해프너 장로와 그의 동반자 딘 래스머슨 장로는 피지 섬 수바의 한 거리 모퉁이에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미 페테로 자매가 길 건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있는 장로들을 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들였다. 그들이 그녀의 집 잔디밭에 서서 그녀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 오셔서 남편에게 복음 토론을 가르쳐 주세요. 남편은 지금 그 공부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장로들은 토니 페테로가 애미와 결혼한 후로 그녀가 언젠가는 남편이 선교사와 공부를 하여 교회에 들어 오기를 기도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 남편이 선교사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애미에게 지나가는 말로 교회를 칭찬한 것이 그녀에게 장로들을 집으로 초대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이다. 장로들은 1973년 11월 그 날 저녁에 전한 복음 토론이 훌륭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복음 토론에 참여하여 질문까지 했다. 그는 장로들에게 친절했으며 그들의 메시지에 흥미를 갖는 것같이 보였다. 공부가 끝나자 그는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장로들이 돌아가자 그는 화난 목소리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교사들을 불렀소? 나는 당신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토니는 선교사와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예절을 지켜 다시오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번째로 교회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는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었으며 4주 후에는 침례를 받았다. 그가 복음을 받아 들이고 급성장 하는 것을 본 그의 아내와 장로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복음 토론을 다 끝낸 후에야 아내와 장로들에게 복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몇 주 전에 한 꿈을 꾸었다. 꿈에 두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어떤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꿈에서 깨었으나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를 부를 용기를 얻은 것이다. 선교사들이 첫날 그에게 첫째 토론을 가르치면서 몰몬경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는 두 장로가 꿈에 본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선교사들과의 공부를 싫어하고 그들을 부른 아내를 나무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 토론이 끝나기 전에 그가 회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품에 대한 몇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차를 즐겼으며 알콜성 음료도 즐겨 마셨다. 성탄절이 다가 오면서 사무실 파티와 함께 음주할 기회가 생겼다. 토니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끊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한두 번 쯤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바 지방부장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것은 당장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토니는 그 이야기가 옳다고 여겨 그 말에 따랐다.

그는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인생에 어떤 방향이 없는 태평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가 다니는 은행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알고난 토니는 그에게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고용된 일터에서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교회에 입교한 뒤 직장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침례받은지 2개월만에 그는 은행 간부로 승진되었다.

복음 토론을 공부하는 동안 선교사들은 토니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토니와 그 부인은 토니가 침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되도록이면 빨리 신전에 가서 가족으로 인봉받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피지 선교부에서 1975년 1월 초에 뉴질랜드 신전 여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전 여행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 1974년 초에 그들은 더 작고 비용이 덜 드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다. 페테로 형제는 침례를 받은지 1년 2주 후에 아내와 더불어 두 아이가 영원히 가족으로 인봉되는 의식을 받았다.

토니는 지금 수바 지방부의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아론 신권 책임자로서 제1회 피지 청소년 대회를 준비했다. 현재는 교회 학교 조직에서 수바 말일성도 국민학교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새로운 말일성도 기술학교 재정 감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

우리는 신전에 가기 위해 월 70센트로 생활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하고 바하이 통가 형제가 간략하게 말했다. 통가 형제와 그의 아내는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신전 헌납식에 참석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가의 성도로서 그러한 여비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달을 준비하고 저축하여 그들은 마침내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여행 계획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을 필요로 했다. 프레드

스톤 선교부장은 통가 부부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던 것이다. "통가 형제님, 신전에 가기 위해 저축하신 돈을 모두 찾아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 건물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형제님께서 돈을 바치시지 않으면 건축 계획은 뒤로 미루어져 앞으로 2~3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내일 돈을 찾아다 드리죠."하고 바하이 통가 형제가 대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신전을 보려던 꿈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스톤 선교부장이 돌아간 후에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아내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이야기 했지요. 아내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에게 우리가 신전 헌납식에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읍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합시다.'하고 나는 말했지요.

"수요일 아침에 나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전부 찾아 왔읍니다. 그 돈을 아내에게 주며 스톤 선교부장에게 가져 가라고 했읍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했지요. '여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헌납식에 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오. 우리에게 가구와 이부자리 외에 소와 돼지와 말 몇 필이 있지 않소. 그것을 모두 팔아 헌납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하고 나는 말했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축을 팔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와서 보고는 '이 가축을 다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텐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읍니다'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읍니다. 목요일도 금요일도 모두 마찬가지였읍니다. 다음 월요일은 토푸아호가 출발 하는 날이었읍니다.

"토요일 아침에 세 가족이 와서 소와 돼지와 그밖에 다른 것을 사 갔읍니다. 우리는 약 30분 동안에 500~600불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읍니다.

나는 아내에게 여비가 된다고 말했읍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는 누쿠알로파로 가서 스톤 선교부장에게 그 돈을 건넸읍니다. 선교부장은 놀라시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읍니까?'하고 물었읍니다.

"'헌납식에 가려고 가진 것 몇 가지를 팔았읍니다.'

"'통가 형제님, 주님께서는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하고 선교부장님은 말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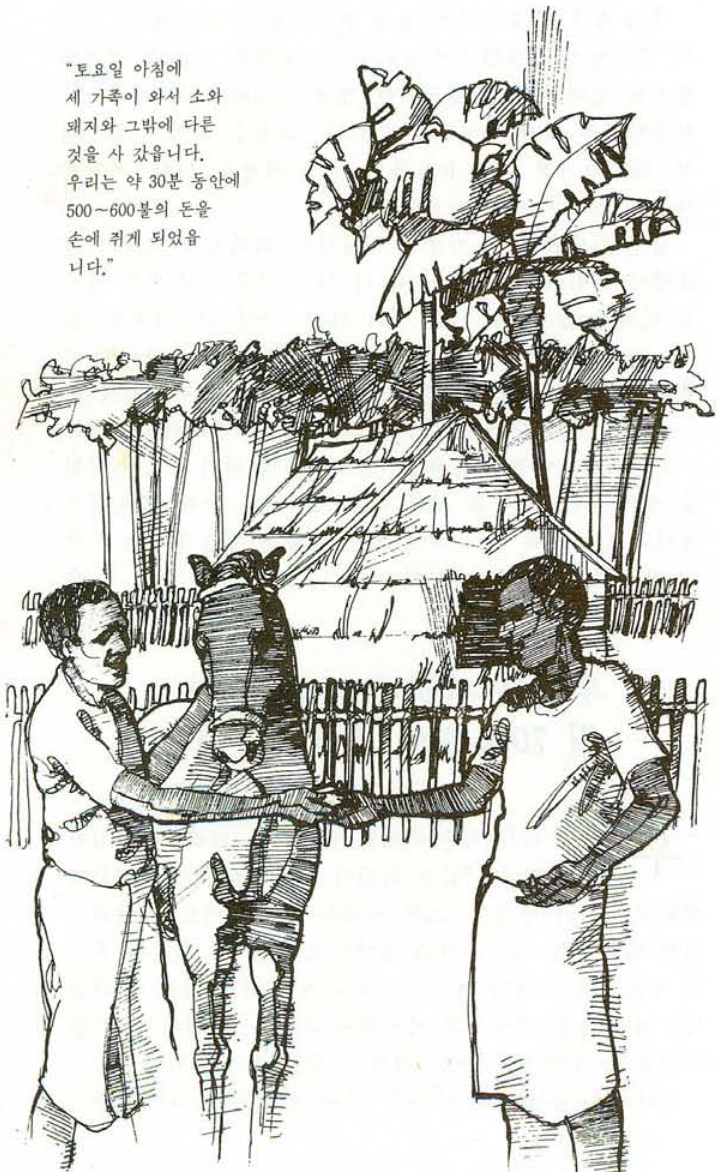
"신전에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깨달았읍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신전을 보고 그 신전에 들어가 인봉을 받은 최초의 부부가 되었읍니다. 나는 통가 합창단 지휘자였는데 맥케이 대관장님께서는 나에게 헌납식 폐회 찬송 지휘를 시키셨읍니다.

"아내와 내가 인봉되었을 때 가슴에 무엇인가가 느껴졌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읍니다. 눈물이 솟았읍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네 아이에게 그들이 협력하면 우리가 함께 신전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읍니다.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내가 신전에서 저 아이들과 인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할 수 있겠나?' 아이들이 내 자식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을 희생했읍니다. 나는 학교 봉급에서 가족 개개인 몫으로 돈을 떼어 저축했읍니다. 그러나 십일조와 금식 헌금은 꼭꼭 바쳤읍니다. 매월 우리 생활비로 남는 돈은 70센트였읍니다. 우리는 손수 길러서 거둔 것으로 생활했읍니다. 아내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바나나와 코코낫 액으로 셀러드를 만들었으며 아이들은 과자도, 신도 살 수가 없었고 영화 구경도 할 수가 없었읍니다. 신전에 가기 위해 저축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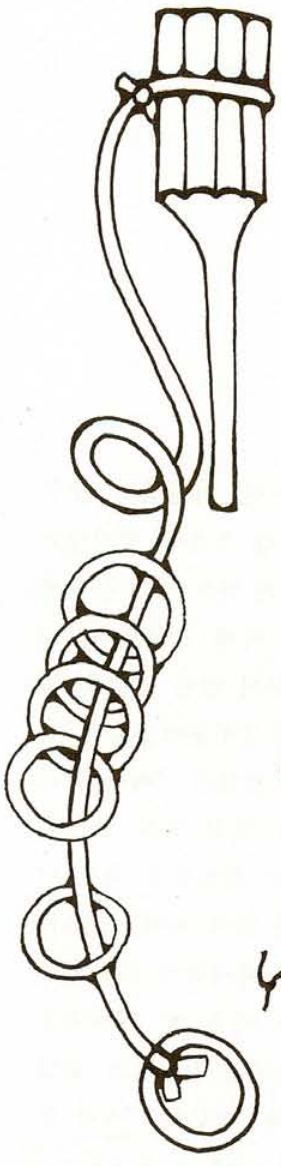
"나는 리아호나 고등학교에서의 정규 수업 외에도 무슨 일이든 있는대로 다 했읍니다.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7마일이나 떨어진 누쿠알로파에서 갖는 지방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녔읍니다. 나는 선교부 상향회 회장의 보좌였기 때문에 여러 지부를 방문해야 했읍니

21페이지에 계속



"토요일 아침에 세 가족이 와서 소와 돼지와 그밖에 다른 것을 사 갔읍니다. 우리는 약 30분 동안에 500~600불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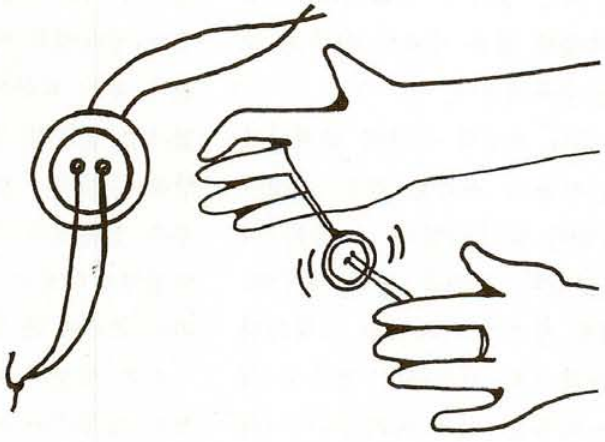
집에서 만드는 장난감



고리 던지기

준비물 : 주머니 칼, 직경이 약 2센티쯤 되고 길이가 약 30센티가량 되는 단단한 막대기, 약 90센티 길이의 부드럽고 단단한 끈, 막대기에 쉽게 들어가는 큰 고리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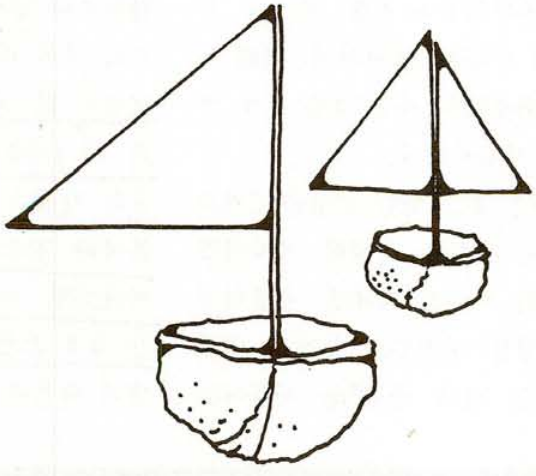
1. 고리는 상점에서 사거나 뼈로 만들거나 마른 박의 목에서 잘라내도 된다.
2. 막대기의 한쪽 끝을 깎아 끝이 둥글고 매끄럽게 되도록 한다. 끝이 너무 날카롭게 되지 않도록 한다.
3. 막대기 손잡이에 끈의 한 쪽 끝을 맨다. 끈이 미끄러져 나가면 손잡이에 홈을 파서 맨다. 고리는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끈에 꿰고 나머지 하나를 끈의 맨 끝에 매어서 다른 고리들이 빠지지 않게 한다.
4. 막대기의 손잡이를 쥐고 고리를 흔들어 올려서 막대기의 끝에 되도록 고리가 많이 걸리게 한다.



단추 돌리기

준비물 : 구멍이 두 개 있는 직경이 약 5센티되는 단추 하나와 약 60센티 길이의 끈 두 개.

1. 끈을 각각 단추의 두 구멍에 끼운다. 두 끈의 양 끝을 그림에서와 같이 맨다.
2. 양 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끈 매듭을 걸고 단추를 흔들어 돌려 끈이 팽팽히 꼬이게 한다. 두 손을 밖으로 벌려서 팽팽히 꼬인 줄이 풀려 다시 반대 쪽으로 팽팽히 꼬이게 한다. 이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단추나 나무 원반의 직경은 최소한 5센티는 되어야 한다.



호도 껍질 배

준비물 : 빈 호도 껍질 반쪽, 양초, 가늘고 곧은 막대기, 돛을 만들 종이나 잎, 가위

1. 양초를 녹여 호도 껍질에 부어 넣는다.
2. 종이를 돛 모양으로 오린다.
3. 막대기를 종이에 찔러 끼우고 한쪽 끝을 녹인 양초에 찔러 넣는다.

힐라맨과

이천명

(앨마서 53~56장)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마침내 모로나이 장군과 그가 이끄는 니파이 군대가 커다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적의 요새인 뮬렉성을 탈취했다.

모로나이와 그의 백성들은 그 후 수 개월 동안 그들의 요새를 개축하고 가족을 위한 식량을 마련했다. 이러한 준비 때문에 니파이인들의 주의가 다른 데로 쏠렸기 때문에 레이맨인은 남쪽 해변에 있는 니파이인의 여러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다. 니파이인들이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레이맨인은 더욱 대담해져서 니파이인들의 큰 성을 공략할 준비를 서둘렀다.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 주님께로 개종한 암몬 백성들은 그들을 방어하는 니파이인들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니파이인 친구들을 도와 레이맨인과 싸우려 했다. 예언자 힐라맨은 싸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제의에 감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을 설득시켰다.

그러나 조상의 서약에 얽매이지 않는 의롭고 용감한 암몬 백성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는 목숨이라도 바치기로 맹세하니 참으로 저들은 자유를 던져 버리지 아니하고 니파이인들과 저들 자신을 속박에서 구하여 방어하기 위해 어느 경우에라도 싸울 것을 굳게 맹세"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젊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존중하고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한 자들이었다.

젊고 용감한 이 아들들의 수는 2,000명이었지만 그들은 힐라맨이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원했으며 힐라맨은 이에 응하였다. 그들이 젊기 때문에 전쟁 경험은 없었지만 훌륭한 군인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들이 "아버지"라 부른 힐라맨의 지휘 아래 그들은 연전연승하였고 전쟁으로 지친 니파이 군대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암몬 백성의 아들들이 참전했던 모든 전투에서 이들 중 부상자는 많았으나 전사자는 한 명도 없었으니 이는 비록 그들이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였고,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아놀드 후라이버그의 그림에서

아버지와 사울이 조반을 마치자 레베카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설겆이를 빨리 끝내면 그녀는 한나의 집에 맨 먼저 도착할지도 모른다.

"나가기 전에 설겆이나 같이 해야겠구나."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디 가세요?" 레베카가 놀라며 물었다. "또 할머니 댁에 가세요?"

"아니야, 옹기 장수 에즈라 집에 가봐야 한단다. 그 집 부인이 여러 날 몸져 누웠는데 도와 줄 일이 많아. 라첼에게 침대 정리하는 일 좀 도와 달라고 하려무나, 안나는 곧 또 잠을 잘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레베카는 놀라는 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아이들을 모두 제게 맡기려구요?"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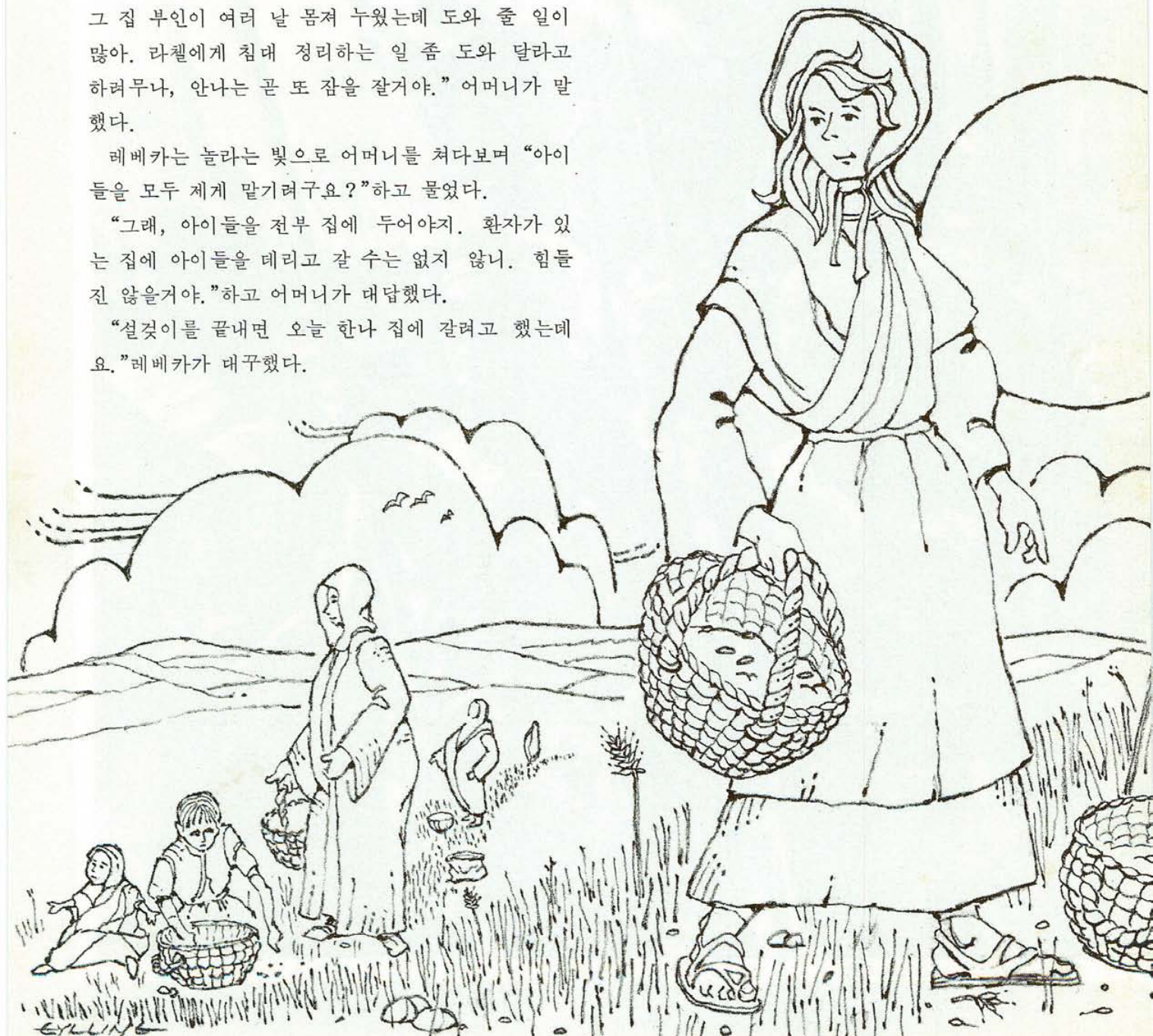
"그래, 아이들을 전부 집에 두어야지. 환자가 있는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니. 힘들진 않을거야."하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설겆이를 끝내면 오늘 한나 집에 갈려고 했는데요."레베카가 대꾸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단다. 한나 집에는 다음에 갈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가 상냥하게 타일렀다.

"한번 쯤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왜 늘 엄마만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돕지, 많은 사람이 도와 주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동생 넷을 잘 돌봐줘야 한다. 아빠와 사울은 낮에 집에 오시지 않을거다.



그렇지만 라첼과 아기에게는 점심을 차려 줘야 한다. 알겠니?"

레베카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난 왜 언제나 집만 보고 놀지도 못하나? 난 한나나 다른 아이들이 집을 지키거나 일하는 걸 못 봤는데. 정말 불공평해!

어머니가 외출한 후에 레베카는 억지로 동생을 돌보며 집에 있었으나 종일 기분이 언짢았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레베카에게 "이틀 후면 마을 서쪽에서 추수가 시작될게다. 할머니가 오셔서 동생들을 봐 주실테니 넌 나하고 같이 나가 이삭을 줍자."하고 말한 것을 보면 어머니는 레베카가 기분이 언짢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이삭이요?" 레베카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투로 큰 소리로 말했다. "양털 장사 사이몬씨 부인이 거지처럼 이삭을 주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안 식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런 일을 배울 필요가 있어."하고 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레베카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얘야, 여자란 언제 자기 집이 궁핍해질지 모른단다. 많은 일을 배워야 해. 힘든 일이라도 말이야."

"여자의 손은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란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단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늘 있게 마련이지."

레베카는 또 다시 친구들에게 함께 놀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레베카가 그들에게 함께 이삭을 줍지 않겠느냐고 하자 한나는 거만하게 웃으면서 "우리 아빠는 집안 여자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단다."하고 말했다.

레베카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왜 엄마는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모르실까? 그녀는 화가 나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해도 뜨기 전에 할머니가 동생들을 돌보러 오셨다. 어머니와 나란히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마을을 질러 걸어가는 레베카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들에는 벌써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레베카에게 낫질하는 사람들이 베지 못하고 간 곡식을 찾아서 그 알맹이만 훑어 바구니에 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새가 날아 와 곡식을 다 주워 먹기 전에 빨리 이삭 줍기를 마쳐야 한다"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레베카는 처음에 곡식 낱알을 훑어 바구니에 넣으려면 밑 줄기까지 뽑아야 했지만 조금 지나서는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라

루시 파

곧 익숙하게 할 수가 있었다. 바구니의 바닥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다. 등과 팔이 아파와서 레베카는 잠시 몸을 펴고 쉬었다. 그녀는 들판을 둘러 보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들은 여러 층의 연령의 여자들과 아이들이었다.

레베카는 너무 늙고 몸이 부자유스러워 도저히 들판을 걸어다닐 수 조차 없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웠을 정도 밖에 안돼 보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

들에 나와 일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레베카는 일손을 더욱 빨리 움직였다. 이삭을 많이 주으면 어머니는 내가 주은 곡식 가운데 얼마 쯤을 저 할머니나 어린 아이의 바구니에 부어 주시겠지 하고 레베카는 그들에 대한 가엾은 생각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등이 아파서 또 한번 쉬는데 그녀 바로 옆에 그녀 또래의 소녀가 서서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이삭 줍기에는 등 아픈게 제일 힘들어. 하지만 며칠 계속하면 괜찮아 져."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 전에도 이삭 줍기를 해 보았니?" 레베카가 물었다.

"많이 해 보았어." 소녀는 다시 한 번 등을 문지르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시작했다. "이 밭 주인은 언제나 이삭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많이 남겨 두지, 정말 큰 축복이야."하고 그 소녀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다.

레베카는 그 소녀를 재빨리 건너다 보았다. 이삭 줍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2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소에게 받혀 더 이상 힘든 일을 못하셔,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내 아래로 동생이 셋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한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레베카의 얼굴은 놀란 빛으로 가득했다.

"난 오늘 처음 나왔어.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이삭 줍는 것을 배워야 한대. 하지만 난 일이 참 더뎌." 하고 레베카가 말했다.

"곧 익숙해 질거야." 그 소녀는 레베카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저쪽에 계셔"하고 레베카가 들판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너희 어머니를 알고 있어. 매년 들에 나오시지. 우리 마을에는 너희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아."

"어머니는 여자의 손은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셔."하고 레베카가 말했다.

어머니가 와서 점심 시간이라고 일러줄 때까지 두 소녀는 함께 일을 했다.

레베카는 새 친구에게 "같이 먹자"고 새 친구에게 권했다.

"난……난 벌써 일을 마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동생이……"

그 소녀는 레베카가 오전에 본 어린 소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동생도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해."하고 레베카가 계속해서 말했다. 레베카는 그들이 점심을 싸 오지 않았다고 짐작했다.

점심 보따리를 보자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빛이 가셨다. 레베카는 몹시 시장했지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지 않고 음식을 그 소년에게 주었다.

그 소녀와 소년이 다시 이삭을 줍기 시작하자 레베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제가 매일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 그 이삭을 가난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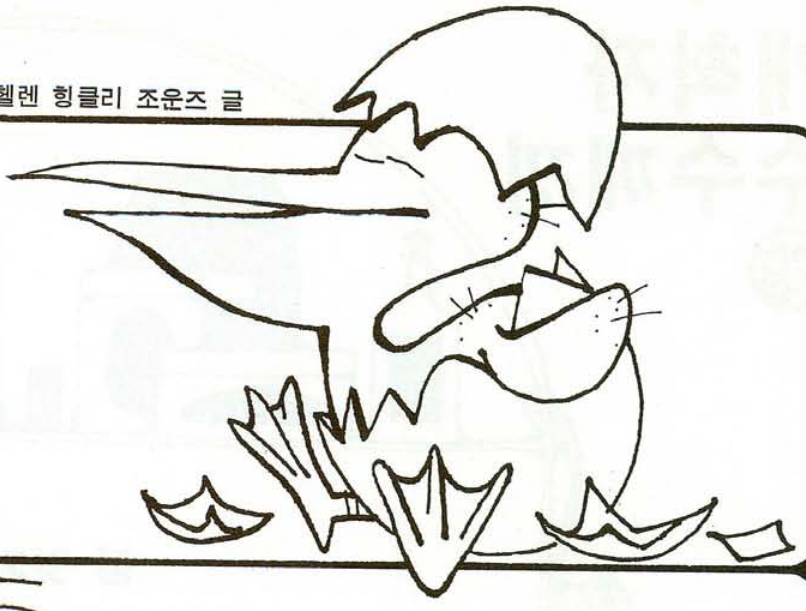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레베카를 껴안고는 "얘야, 정말 너는 자랑스러운 내딸이구나. 너는 그처럼 빨리 사랑의 방법을 배웠구나."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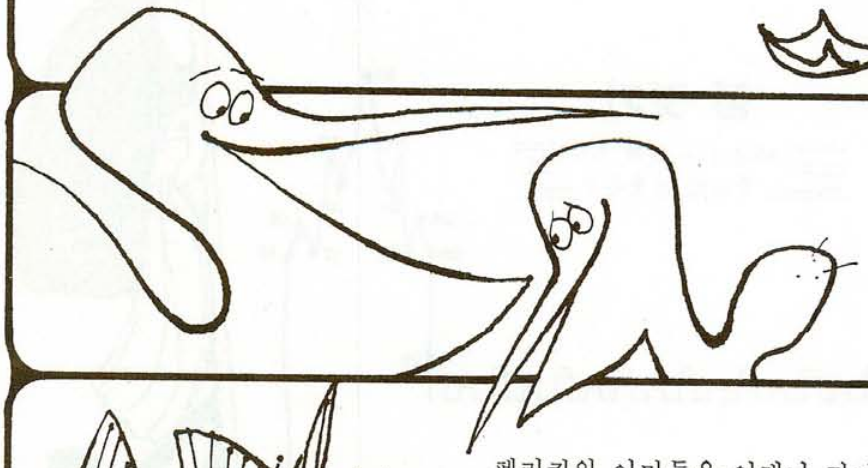
"전 더 일찍 알아야 했어요. 엄마는 그처럼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는데도 난……" 하고 레베카가 대답했다. *

꼬마 펠리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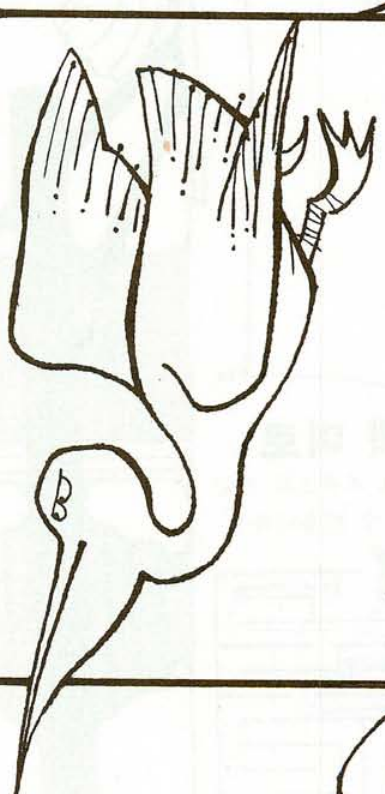
헬렌 힝클리 조운즈 글

꼬마 펠리칸이 껍질을 깨고 나와 보니 어미가 그곳에 없었다. 어미는 언제나 알을 조심스럽게 품고 있다가 잠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것이다. 다른 펠리칸과 마찬가지로 꼬마 펠리칸도 그가 혼자 있다는 것과 그에게 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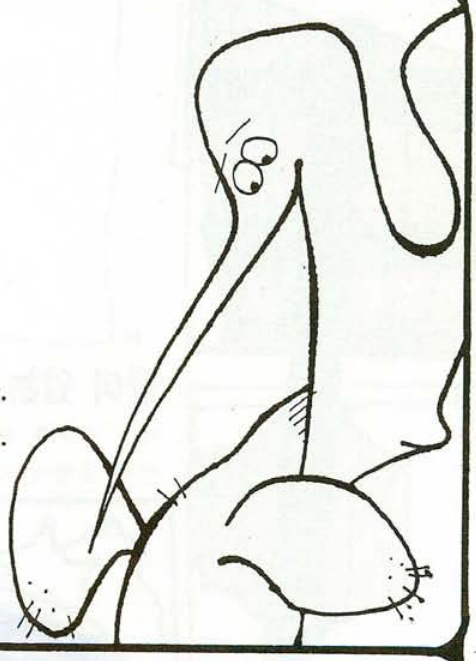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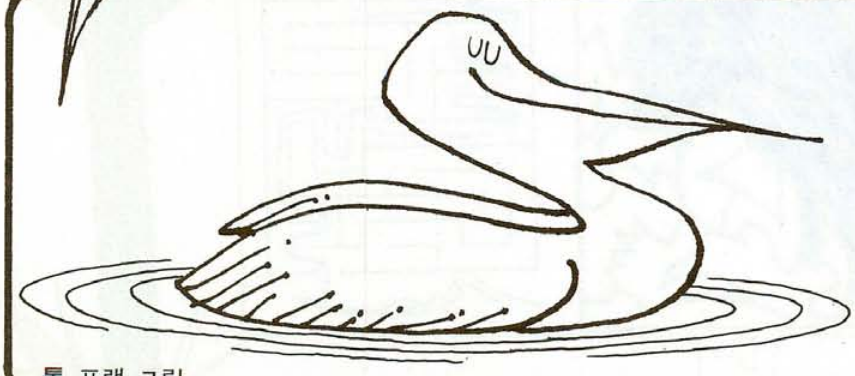
덮을 깃털 하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펠리칸의 어미들은 언제나 자기 새끼나 다른 새끼를 보살펴 주려 한다. 곧 한 어미 펠리칸이 와서 꼬마 펠리칸에게 참으로 이상한 먹이를 주었다.

펠리칸은 훌륭한 어부이다. 그들은 곧바로 물 속으로 뛰어 들면서도 수면에 거의 아무런 물결도 일지 않게 한다. 그들은 발과 긴 부리로 큰 고기를 잡는다. 펠리칸이 고기를 삼키면 이 고기는 첫째번 위장인 펠리칸 소낭으로 들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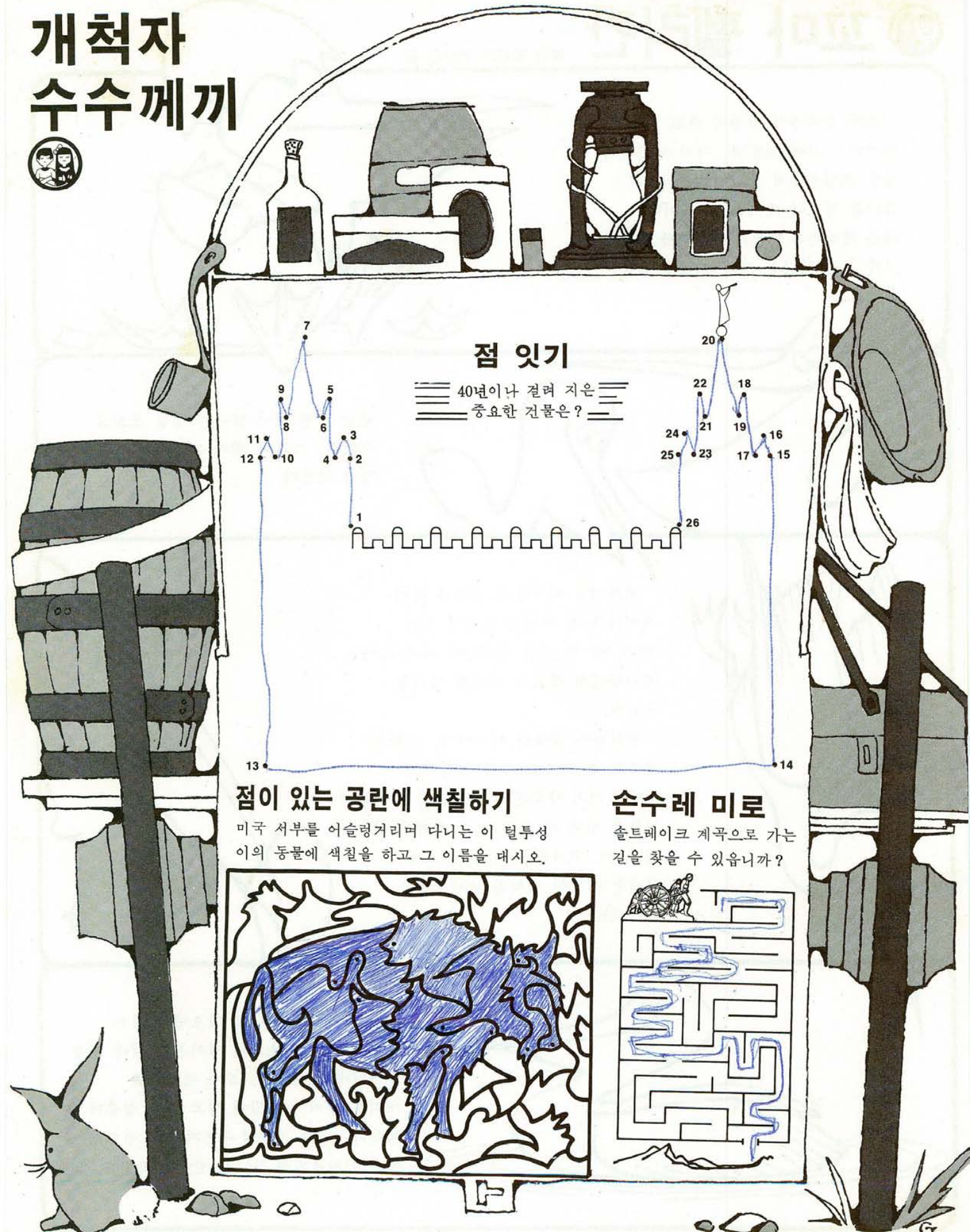




꼬마 펠리칸이 먹이를 찾으면 어미는 소낭에서 반쯤 소화된 먹이를 부리에 달린 주머니에 토해낸다. 꼬마 펠리칸은 머리를 주머니에 밀어 넣고 먹고 싶은대로 먹는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꼬마 펠리칸은 여러 어미에게서 먹이를 받아 먹고 자란다. ✻

톰 프랫 그림

개척자 수수께끼



점 잇기

40년이나 걸려 지은 중요한 건물은?

점이 있는 공란에 색칠하기

미국 서부를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이 털투성이의 동물에 색칠을 하고 그 이름을 대시오.

손수레 미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읍니까?

12페이지의 계속

다. 대부분의 지방부 집회는 아침 6시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야 했읍니다.

"돈을 찾는 날이 왔을 때 다섯살짜리 딸 아이는 '아빠, 나 가서 내 돈을 세어 볼래요' 하고 말했읍니다. 그 아이는 돈을 세어 보고는 '난 다 됐어요. 이젠 신전에 갈수 있어요' 하고 말했읍니다. 그 위의 두 사내 아이는 약 235불을 저축했다고 말했읍니다. 막내 아이는 2년 동안 저축하여 65불을 모았읍니다. 나는 약 1,300불을 저축했읍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가 신전에서 인봉을 받을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

지혜의 말씀이 주는 축복

어네스트 시 로시터 선교부장과 그의 아내는 타히티에서 뱃길로 사흘이나 되는 타카로아 항구로 입항하면서 섬의 코코낫 나무가 노랗게 되어 있고 잎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염려스럽게 바라보았다. 이튿날 아침에 이들은 나무가 그렇게 된것은 그 섬 주민들에게도 큰 근심거리라는 것을 알았다. 주민들은 엄숙한 모임에서 로시터 선교부장에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꺼내어 이야기했다.

추장은 위엄있게 그곳에서 선교부장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 "에레네타 부장님, 우리는 오랫동안 백인 상인들에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읍니다. 코코낫 나무는 병이 들어 나무 잎은 축 늘어져 있으며 열매는 익지도 않은채 땅에 떨어집니다. 상인들은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농장에서 우리를 내쫓겠다고 위협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매년 진주를 캐내는 계절을 맞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면 예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돌아 오지요.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려면 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로시터 선교부장의 마음은 매우 침울해졌읍니다. 주민들의 빚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했다. 그 결과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십일조와 금식 헌금도 바치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신권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금식을 하던 마지막 날 오후에 로시터 선교부장은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았다. 그곳 집회소에서 그는 그에게 임한 주님의 권능과 힘찬 어조로, 그가 알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강력히 회개를 외쳤다. 그는 그들에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농장이 다시 녹색으로 건강한 상태를 되찾고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로시터 선교부장은 주민들의 빚을 청산하는 일을 돕기 위한 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타히티로 돌아가 주민들이 진주를 캐는 계절에 사용할 배 한척과 다른 필요한 것들을 빌렸다. 그는 다시 이 배를 주민들이 사는 타카로아로 끌고와 그곳에서 가축과 다른 물건을 싣고 진주 굴착장이 있는 다른 섬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로시터 선교부장의 감독 하에 주민들은 집을 짓고 위생적인 생활을 엄격히 했으며 길고 힘든 조개 굴착 작업에 들어갔다. 어느 때보다 검소한 생활을 했고 열심히 그리고 오래 일했다. 조개를 캐는 계절이 끝날 무렵에 이들은 그 섬의 다른 잠수부가 캐낸 조개보다 75%나 더 많은 양의 조개를 캐내었다. 그러나 상인들 중에는 그들의 단합과 성공을 시기하는 자가 있어 단합하여 조개의 값을 내리려 했다. 이들은 로시터 선교부장에게 다른 거래에서는 파운드당 20센트를 주면서 진주 조개 한 파운드에 15센트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로시터 선교부장은 굽히지 않고 이들과 맞섰다. 그는 그러한 값으로는 진주 조개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값이 오를 때까지 진주 조개를 일년 동안 저장해 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가장 큰 무역상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진주 조개를 파운드 당 30센트에 구입할 것은 물론 주민들을 모두 고향까지 여비를 받지 않고 데려다 주겠다고 합의했다.

진주 조개를 캐는 철에 50,000불의 수익을 올렸으며 똑같은 방식이 다음 두 절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완전히 빚을 청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동안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쳤으며 성찬식에도 참석하였었다.

첫해를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 올 때 주민들은 모두 정든 고향의 해변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 보았다. 고향의 섬이 가까워져 농장이 시야에 들어오자 이 충실한 성도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찬란한 아침 햇빛 아래에 코코낫 나무 잎은 병색을 씻고 건강하게 짙은 초록으로 변해 있었으며 열매도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3년 후에 그들은 완전히 빚을 청산하고 농장을 되찾게 되었다. 성도들은 이 큰 축복에 겸손히 주님께 감사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교성82 : 10)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

알 러너어 브리티쉬, 브리감 영 대학교 역사 및 아세아 연구 부교수. 현재 오렘 유타 새론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조안 머피 브리티쉬, 오렘 제3와드 초등협회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함. 이들 부부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음.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존 루이스 런드

아들이 왜 아버지를 공경하나? 11명의 자녀 중 둘째인 세켈리 살레 마누는 그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유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경건한 태도를 갖기 때문이다.

세켈리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온 가족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서 사모아의 사투파이테아(지금의 모술라)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지부를 세워야 했다. 그곳은 몰몬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 박해가 심한 곳이었다. 한번은 그곳의 어느 목사가 이끈 폭도들이 와서 병자를 방문하던 그들 가족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있었다. 세켈리는 그가 그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땅바닥에 밀려 쓰러져 있는 동안 목사가 아버지를 어느 나무에 밀어 붙인 뒤 칼을 목에 대고, "왜 나의 양을 도둑질하는가?"하고 위협하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이곳 백성을 속이고 있으며 또 당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오."하고 살레 마누가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아버지는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소."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위협했던대로 마누 가족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으며 드디어 그 가족은 마을 수령으로부터 "마을을 떠나라. 떠나지않으면 죽이겠다."고 적힌 글을 받았다.

살레 마누는 카누를 타고 꼬박 이틀이나 걸리는 뱃길을 떠나 존 아담스 선교부장을 만나러 갔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물음에 아담스 선교부장은 살레에게 그 문제에 대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살레 마누는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동안 물 위에서의 이틀이나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섬, 이 마을에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하는 우리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도록 하자."

1945년 12월 24일 정원은 모두 짓밟히고 나무는 잘리워 쓰러졌으며 파인애플은 뿌리채 뽑혀져 버렸다. 마을의 수령은 내일 아침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겠다고 했다.

성탄절 아침에 마누의 가족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내 아이들이 모두 입을 수 있을만큼 흰 샤쓰가 없었기 때문에. 세켈리는 샤쓰를 입지 않고 기도에 참여했다. 폭도들이 집에 불을 질렀을때 가족은 부엌으로 피신했으나 그곳에도 불이 붙었다.

수령의 명령에 따라 불은 크게 타 올랐다. 마누 가족에게는 그 마을을 떠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살레 마누는 의연히 서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의 교회가 참되다는 것과 나의 간증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오. 나는 몰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나의 간증을 죽음으로 인봉할 준비가 되어 있소."

큰 불길 때문에 모두 뒤로 물러서야 했다. 수령은 "살레 마누,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오. 어떻게 하겠오?" 하고 말했다.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오. 무엇을 더 기다리시오?"하고 살레 마누가 대답했다.

수령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구려. 나는 이런 큰 일을 참으로 저지를 수가 없오."하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큰 불도 꺼졌다. 그날 저녁에 경관이 와서 수령과 목사와 그 밖에 약 40명을 체포해 갔다. 그후 방청객으로 가득찬 법정에서 판사는 박해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판사는 살레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무소 생활을 포함하여 선생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나는 그대로 이들을 처벌하겠읍니다."

그러나 살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일성도들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하여 그들을 가족에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부터 말일성도들은 이 섬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만일 회원 수가 많아 교회를 지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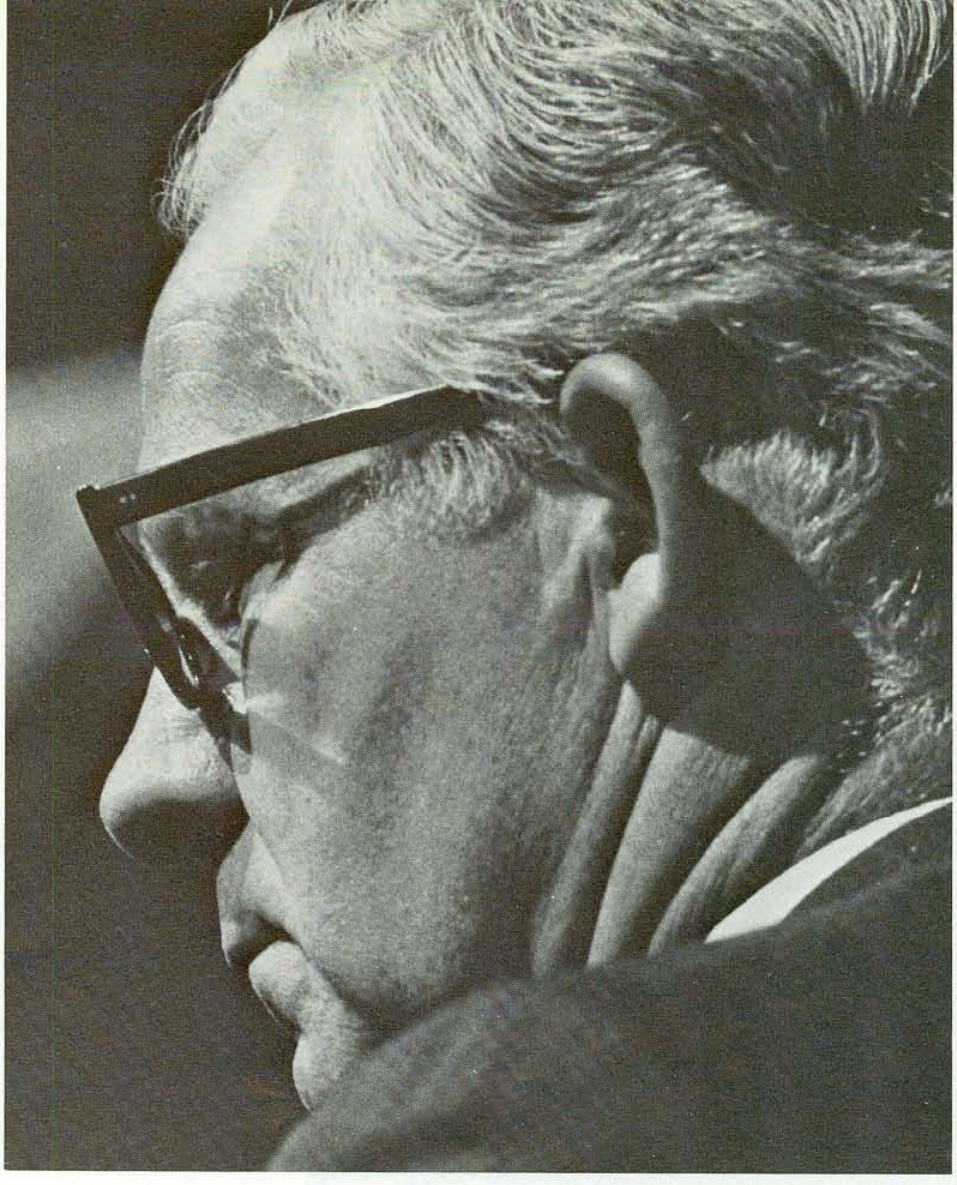
수백명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했다. 2~3개월 내에 불과 소수를 제외한 900여명의 주민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 성도들이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겠느냐고 물었을 때 살레 마누는 불길이 타올라 재만 남은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현재 교회 건물은 바로 그곳에 세워져 있다.

살레 마누는 마을을 돌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가 태어난 마을인 파고말로에서 지부장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봉사를 하던 중에 그는 한 부수령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입교해야겠다고 거의 작정을 했으면서도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살레 마누씨 선생께서 끝까지 충실하시다면 나는 이 교회에 입교하겠읍니다"하고 말했다. 살레 마누는 죽기 전에 이 사람의 집 정문이 마주 바라 보이는 곳에 자신이 묻힐 땅을 샀다. 물론 이 부수령은 살레 마누가 죽은 후에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입했다. 이 부수령은 후에 지부장이 되었다.

현재 사모아 전역은 스테이크로 둘러 싸여 있다. 지역 전체가 시온의 스테이크로 조직된 것은 세상에서 이곳이 처음이다.

살레 마누가 한 모든 설교 중에서도 가장 힘찬 설교는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세켈리에게 한 몇 마디 즉 "세켈리야, 너는 네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세켈리 살레 마누가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는가? *

존 루이스 런드는 올림피아 워싱턴 스테이크 지역 신학 연구원 원장이다. 그는 올림피아 스테이크 제3와드 감독이며 감독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스테이크 선교부장이였으며 이때 그의 제1보좌는 세켈리 살레 마누였다.



금전에 대한 가르침

마빈 제이 애쉬튼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금전 관리를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개인 또는 가족의 재정 관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읍니다.

1. 가족에게 일찌기 노동과 그에 따른 수입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는 말씀은 진부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복지에 근본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의 하나는 그들에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와 월 용돈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읍니다. 그에 대한 의견과 권고는 구구 각각입니다. 나는 자녀가 봉사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여서 용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읍니다. 자녀가 집에 돈 나무가 있어 일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씩 자동적으로 돈이 열려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2. 자녀에게 스스로 돈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돈을 저축하라"는 말은 자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저금하라. 자전거, 옷 또는 혼수감을 살 수 있도록 저금하라"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해가 빠른 말이며 의미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단합은 가족이 모두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합심하여 저축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중요한 계획을 위해 저축하도록 하게 할 때 가정이 더욱 단합되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자녀가 일정한 목표액을 저축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마치 교회가 와드나 스테이크에 건축 및 부동산 구입을 위해 돈을 보태 주는 것과 같이 예정된 비율로 그들이 모은 돈에 부모의 돈을 보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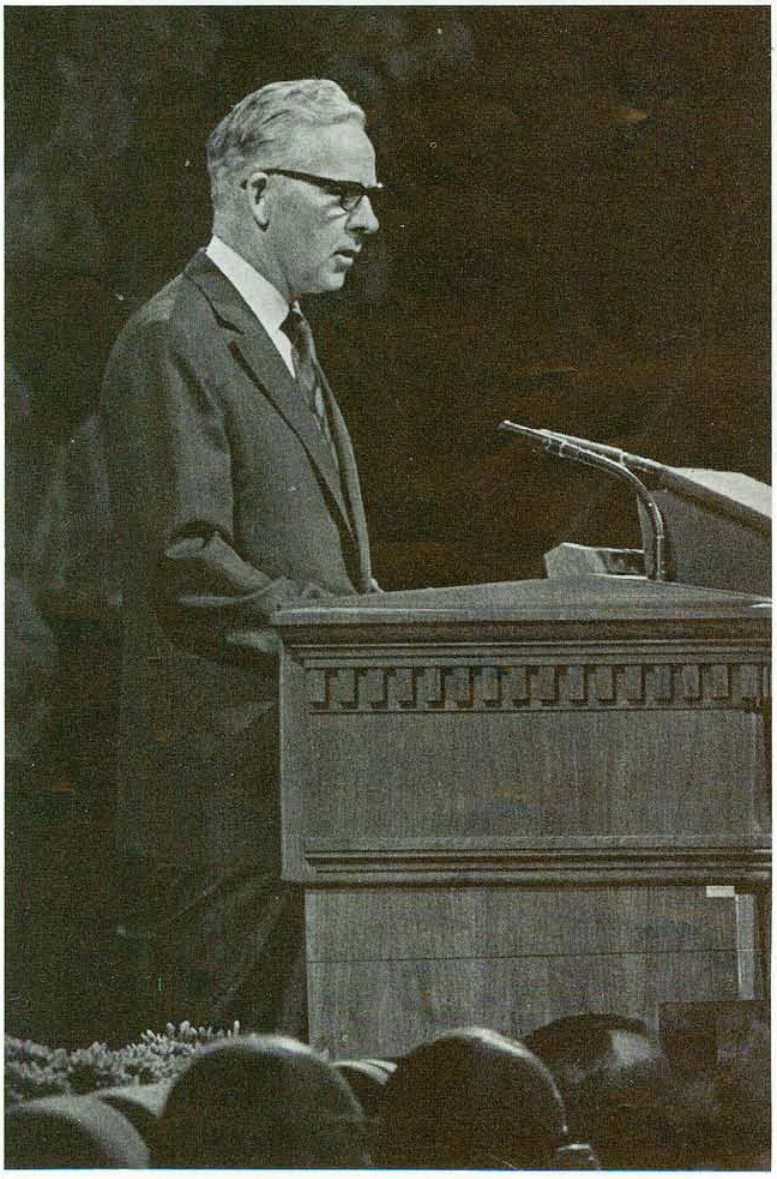
3. 가족에게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해 각자가 이에 기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즐거운 활동을 갖도록 권장하십시오. 가정의 밤 같은 때에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매월 선교사로 봉사하는 아들, 딸 또는 형, 누나를 위해 저축한 자기 몫의 돈을 계산해 보는 훌륭한 재정적이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읍니다. 가족이 모두 이러한 월례 활동에 참여할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선교사는 "우리의 선교사"가 되며 가족은 모두 긍지를 갖게 됩니다.

4. 가족에게 부채를 즉시 청산하는 것은 성실과 정직의 한 요소라는 것을 가르십치시오. 매월 확인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우리가 보다 정직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과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5. 금전이 여러분을 관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장차 신부가 될 자매는 "나의 약혼자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가?"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가?"하고 자문해 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하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부부가 꾸준히 금전에 대해 개선된 새로운 태도와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하고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6. 금전 문제에 있어 자율과 극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돈을 쓰고 싶은 충동보다 그들의 동반자와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성숙한 부부인 것입니다.

금전 관리 기술은 계속 사랑과 협조의 정신으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세상에서 돈을 제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나는 "거울을 들여다 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교사를 보라"고 말하고 싶읍니다.



7. 예산을 세우십시오. 주택이나 교육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구는 현금으로 장만하십시오. 외상이나 월부를 피하십시오. 그런 제도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함부로 그러한 방법으로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신품을 살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까지는 중고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교회에 헌금하고 부채를 즉시 청산함으로써 순종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이제 다음말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말을 거북하게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제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채권자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말일성도는 그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가져 마땅합니다. 그들은 말일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규 교육은 다 받도록 하십시오. 교육을 위해 사용된 돈은 현명하게 사용된 돈입니다.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야간 학교와 통신 강좌를 활용하십시오. 장기간 실업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습득하십시오. 실업율이 매우 높은 오늘날은 실직되었을 때, 일시적이지만 좋은 일이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기까지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9. 집 장만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투자이지 소비가 아닙니다. 자기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십시오. 그 집에 사는 동안 계속 집을 더 안락하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집을 팔게 되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읍니다.

10. 적당한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충분한 의료 보험과 적당한 생명 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1. 현존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이것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돈의 진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는 있지만 돈의 가치는 이전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3년보다 구매력이 낮은 상태에 있읍니다. 경기 하락 상태는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가고와 에너지 결핍의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2. 법률이 허용하는 곳에서는 적당히 식량 비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조직적이고 질서있게 생활 필수품을 저장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빚을 져서는 안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계획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제언은 모두 받아들여서 수행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그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명한 금전 관리를 위해 이러한 기본 지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전 관리가 개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란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하겠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말일성도의 생활에서 돈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아무렇게나 돈을 사용하면 우리는 재정적인 속박에 매여 살게 됩니다. 금전 관리에 개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말 3 : 10)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남 태평양

지역 대회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열 엿새 동안 남태평양의 사모아, 뉴질랜드, 피지, 통가, 타히티,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보른, 시드니, 브리스베인 등지에서 열린 지역 대회를 통해 이 지역에 사는 회원들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그밖의 총관리 역원을 만나 보았으며 영적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 대회에는 킴볼 대관장을 위시하여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십이사도 평의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또 십이사도 보조인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로버트 엘 심슨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교회 관리 감독인 빅터 엘 브라운 감독,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로렌 시 던 장로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회는 2월 15일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 파고에서 시작되었다. 서사모아의 페세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서 가진 특별 대회에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했다.

다음날에는 서사모아에서 대회가 시작되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대회를 위해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다. 일주일 동안이나 불던 바람과 폭우가 멎고 대회 당일에는 하늘이 맑게 개었었다.

킴볼 대관장 일행이 페세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사모아의 국가 원수와 수상, 그밖에 사모아의 다른 큰 교회 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회원과 비회원 5,000명 이상이 운집한 가운데 킴볼 대관장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로열 카바 의식이 거행되었다.

로열 카바 의식은 사모아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베풀어지는 가장 큰 존경의 표시이다.

이 의식이 끝나자 잔치와 선물 증정이 있었다. 저녁에는 여러 스테이크의 성도들이 출연하여 즐기는 문화의 밤 프로그램이 있었다.

대회의 여러 모임에 참석한 총관리 역원들은 사모아의 선교사 130명 중 80%가 사모아인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킴볼 대관장은 계보사업과 선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신전 건립의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폴리네시아인은 니파이인 헤이고드의 후손이라고 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회 중 킴볼 대관장은 신전 결혼을

이 높은(70%) 사모아 성도들을 칭찬했으며, 그러나 지역적으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회 이후로 사모아 교회에는 모든 면에 걸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언자와 그밖의 총관리 역원들은 사모아를 떠나 뉴질랜드의 오크랜드로 갔다, 그곳에서 킴볼 대관장은 뉴질랜드의 수상과 오찬을 나누었다. 일행은 다시 대회 장소인 해밀튼으로 떠났다.

킴볼 대관장 부부가 가벼운 질병으로 쉬고 있는 동안 태너 부대관장과 그밖의 역원들은 전통적인 마오리 환영의식에 참석했다. 한 명의 무사가 태너 부대관장 앞에 녹옥을 펴는 전통적인 의식을 거행한 뒤 환영식을 가졌다.

그날 저녁에는 3,000여명이 마오리 폴리네시아 문화의 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정규 대회 모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졌다.

46년만에 닥친 우기에도 불구하고 대회 동안은 맑은 날씨였다. 이것은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일반 총회는 교회 대학의 타원형 노천 스타디움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대회 참석 인원은 약 16,00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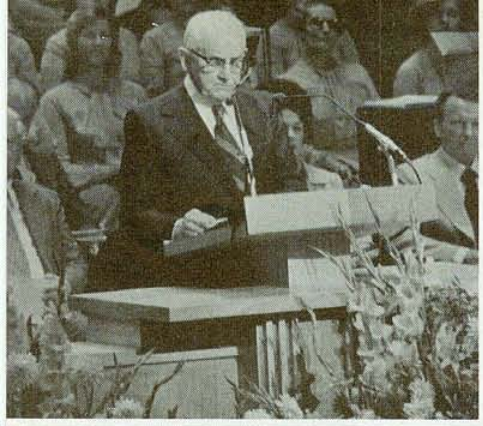
다음에 간 곳은 피지의 수바였는데 약 800명의 회원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734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뉴 칼레도니아에서 해로와 육로로 여행해 온 회원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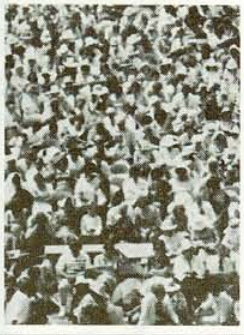
월요일인 2월 23일에 총관리 역원들은 6시간 동안에 걸쳐 기자 회견, 식사를 겸한 환영회, 문화의 밤 행사, 일반 대회 모임 등에 참석했다. 그리고 하루밤을 쉰 다음 이튿날 통가를 향해 떠났다.

총관리 역원들이 피지에 머문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그곳 성도들이 대회를 통해 얻은 영적인 감명은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어떤 성도는 그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저는 강한 간증을 얻었읍니다.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굳어졌읍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 가지로 통가에서도 총관리 역원들은 회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공항에서는 밴드와 200여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선교부에서는 전통적인 카바 의식이 있었으며 커다란 돼지도 잡았다.





킴볼 대관장, 태너 부대관장, 심프손 장로, 데이비드 케네디 장로등은 파타에히 투이펠에하케 왕자와 수상 및 섭정왕자 등과 회견했다. (왕인 타우파아하우 4세와 그밖의 가족은 당시 외국에 가 있었다.)

그날 오후 킴볼 대관장 일행은 180여 마리의 새끼 돼지를 잡은 통가식의 거대한 잔치에 초대되었다. 이어서 문화의 밤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1,000명이 춤을 추는 민속 무용이 있었다. 대회 바로 전날 30센티미터의 비가 내려서 땅이 매우 질었지만 대단한 열성으로 춤들을 추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가 성도들은 총관리 역원과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많은 훌륭한 말씀을 들었다. 킴볼 대관장은 통가인에게 통가에 머물어 그곳에다 시온을 꽃피우라고 당부했다. "통가는 시온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통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더욱 힘찬 노력을 경주하도록 격려했다.

킴볼 대관장 일행은 통가를 떠나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시드니, 브리스베인, 멜보른에서 대회를 가졌다. 시드니에서는 몰몬 선교사들이 1851년에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상륙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에서 대회를 가졌다.

시드니에서의 일요일 아침 모임의 첫 시간은 10개의 텔레비젼 방송망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 방영되었다. 이때 킴볼 대관장은 예언자의 자질에 관해 말씀하였다. "주님의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읍니다. 반드시 운동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실업가나 은행가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읍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읍니다. 주님은 모세의 작고 약한 목소리를 강한 목소리로 바꾸셨으며 또 젊은 에녹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면전에서 떨게 하셨읍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언자입니다. 정결하고 신앙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사랑하는 남편, 참다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하게 될 방송의 준비로서 회원과 선교사들은 친지와 이웃에게 100,000여장의 초대장을 나누어 주어 텔레비젼을 시청케 했다. 텔레비

전 방영이 끝난 후 수백명의 사람들이 그에 관한 서신을 보내 왔다. 한 시청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 가운데 하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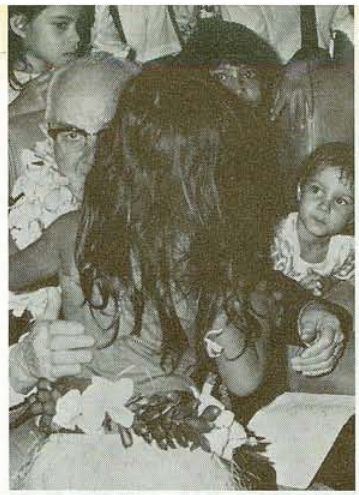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또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썼다. "텔레비전을 통해 그처럼 훌륭한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읍니다."

일요일 아침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가 만원이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있던 어느 방으로 한 고령의 노파가 찾아 왔다. 그 부인이 들어오자 안내자는 그 노파를 자리로 안내했다. 모임이 끝난 후 그 부인은 안내자에게 말했다. "젊은이, 나는 81년 동안 이 때를 기다렸오." 그 부인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의 주소를 적어 갔다.

대회의 마지막 일정은 타히티였다. 이곳에서는 3월 1일 월요일과 3월 2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 대회를 가졌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각각 다른 일정 때문에 나뉘어졌던 총관리 역원들이 이곳에서 한데 모였다.

대회가 열렸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타히티에서도 컴볼 대관장은 계속 회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선물과 춤과 노래로 그를 환영했다.

예언자는 그들이 보여준 사랑에 그



대가를 지불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 가지로 타히티에서도 그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러한 사랑으로 회원들을 권고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타히티 사람들의 시온입니다. 성도들을 집합시키는 일은 여러분과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이웃으로 하여금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과업을 잊지 마십시요.

"여러분이 모든 어린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키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타히티의 회원들 뿐만이 아니었다. 킴볼 대관장 일행은 화요일 아침 타히티의 신임 총독인 찰스 슈미트를 방문했다.

슈미트 총독은 화요일 오후의 계획을 변경하여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맥콩키 장로가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읍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관해 명백하고 힘차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킴볼 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것을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하십시요. 대회가 끝나게 되니 섭섭합니다."

타히티 성도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의 노래를 부르자 총관리 역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의 느낌은 앞서 가졌던 모든 대회에서도 경험한 똑같은 느낌이었다.

킴볼 대관장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가까이 서서 노래부르는 합창단원의 얼굴과 입술의 움직임 그리고 눈물이 고여 있는 눈을 보았다.

그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자 군중 속으로 파묻혀 들어갔다. *

경전과 삶

부산 선교부장단 장 재 환

말일성도의 삶은 즐거움을 발견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계속적인 성취감에 살면서 성실과 노력으로 얻어진 바를 사랑과 희생 그리고 봉사로써 승화시키는 생활이어야 하며, 승영에 대한 확신을 간증으로 굳혀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삶은 영적으로 병약한 성도에게는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따라서 이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의의를 깨닫기도 전에 떠나야 하는 불행한 영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경전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읽고 읽은 바를 행하기에 노력한다면, 그 읽고 행한 바가 오늘은 비록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 무한한 능력에 참여하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확신이 성도의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경전을 읽는 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성공을 약속받는 것이라 하여도 조금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롬 1:16)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은 그의 능력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알며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갖고자 함은 곧 한계가 없는 무한에의 도전을 말하며 이는 완전한 생명, 영생과 무궁, 불사 불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완전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성령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다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7, 13)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셨읍니다.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 2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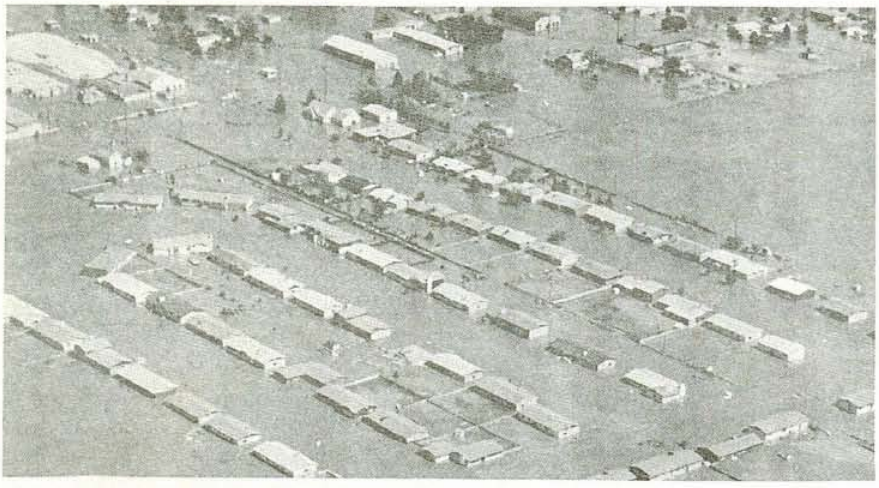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최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에 재차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8)

순종심과 기대로 기도하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다리는 동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행 2:1~4)였읍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경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알며 확신할 수 있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요 11:27)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기쁘고 귀중한 확신을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은 경전에서 얻은 것입니다. 경전과 함께 살며 능력의 말씀에 산다는 것 이상의 바람이 세상에 없음을 간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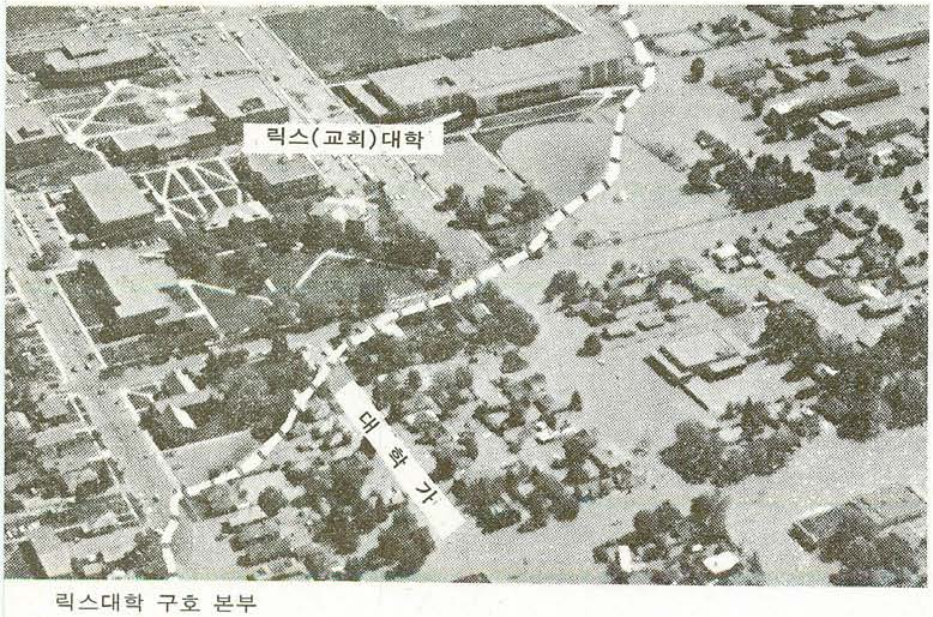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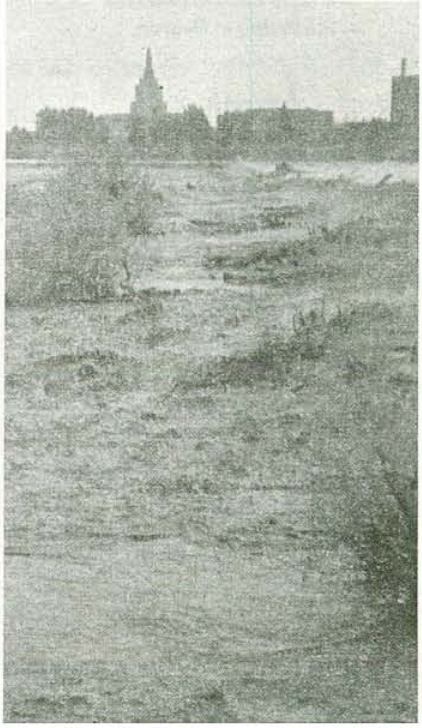
테톤 댐 붕괴 지점. 댐은 완공되기 전에 붕괴되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시를 휩쓴 물바다

방파제용 모래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모습

일요일 아이다호 훨 신전



릭스대학 구호 본부